

사라지지 않는 특수학교 폭행사건



1. 첫번째 문제 도를 넘은 훈육



특수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'훈육'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. 이는 결코 훈육이라 볼 수 없는 '폭행'이다.

2. 두번째 문제

장애학생의 인권 침해



열린 상임위에서 최근 교남학교 등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,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인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. (사진=연합뉴스).

특수학교의 교사가 아이를 잡고 질질 끌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가 밝혀지며 이는 엄연한 **인권 침해 문제**로써 **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**하기로 결정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이다.

3. 세번째 문제

인권 침해에 대한 약한 처벌



특수학교의 교사가 아이를 대상으로 '폭행'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, 선생들 끼리 조용히 넘기는 경우가 많고 또한 **처벌수준도 약하여**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

우리가 해야 할 일 특수학교 문제 개선



이런 특수학교는 **폐쇄적인 것이 구조적 특징**이기에 문제가 크게 일어나더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많다고 한다.

따라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구조적 특징을 없애거나, **일반 학교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.**